

가스공사, 이라크 가스전 지분 확대

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운영 지분을 50%에서 100%로 확대했다고 5월26일 발표했다.

아카스 가스전의 총매장량은 3.3Tcf(1Tcf=1조입방피트)이며, 생산량은 원유로 환산했을 때 하루 7만2000배럴인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11/05/27>